

여러분의 밝은 모습을 보니 설 명절을 가족들과 잘 보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고향을 다녀 오고 이곳저곳 인사하느라 몸은 피곤했겠지만, 마음은 오히려 반가움과 행복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마음의 평온은 그런 것이고 또한 정신의 행복은 육체의 피곤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설이 지나니 어느새 올해도 두 달이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 한 달 앞을 내다보고, 일 년을 미리 보고, 10년을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주어진 일에 부끄럼 없이 매진한다면 미래는 불안의 대상이 아니라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가는 것이자 예측이 가능한 실현의 단계입니다.

언제나 강조해 왔듯이 여러분은 중앙중무기관의 주체이자 주인입니다. 공적도 과오도 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기 직무 앞에서는 언제나 차분하고 냉철하게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함께 업무하는 동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면 화합과 소통은 스스로 이루어질 것이며, 모든 일을 추진함에 있어 큰 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는 업무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도 그러하고 자신이 매여 있는 어느 곳에서나 다 통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실천하고 있으리라 여겨지지만, 특히 올해는 중무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우수한 지식과 경험을 자신의 재적사찰이나 가까운 사찰을 찾아 더욱 베풀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찰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환원하면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는 한국불교의 미래와 중흥을 가늠하는 중요한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자성과 채신을 제안한 33대 집행부가 갖는 가장 중요한 역점은 바로 이러한 조그마한 실천과 다름 바 없으며, 한국불교 중흥이라는 큰 짐을 마주하고 있는 여러분을 더욱 땀땀하게 해주고 자긍심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자성과 채신 결사는 일시적인 단일 사업이 아닙니다. 예외 없이 모두가 참여하는 스스로의 행동이고 종단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리는 일이자 싹을 틔우는 일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이러한 일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중요한 양분입니다. 남의 일처럼 관망의 대상으로 둘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자신의 희망을 세세하게 다지지 못하면서 남에게 희망을 얘기하는 것은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의 희망과 행복을 위해 노력을 다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즐거움이자 복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좀 더 헌신하고 실천해 나간다면 한 해의 성과는 다시 큰 복으로 돌아오고 나아가 단단한 디딤돌이자 주춧돌이 되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덕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나아가 중도와 불자, 그리고 국민의 희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노력한 성과를 설을 맞이하는 복으로 함께 나누며, 업무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언제나 즐겁고 상쾌하기를 바랍니다. 몸과 더불어 정신의 건강이 항상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